

2021 ACC WORLD MUSIC FESTIVAL

세계 속 한국음악, 한국 속 세계음악

아시아성과 지역성을 문화콘텐츠기술(CT)로 구현하고 이를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공유하는 세계 음악축제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세계 속의 한국 대중음악과 세계음악을 되짚어보고 재해석하는 무대인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이 그것.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ACC 예술극장, 어린이극장 등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공감과 치유'에 초점을 뒀다. 코로나로 인한 상실과 우울을 치유하고 음악을 매개로 공감의 장을 연출하자는 취지다. 예술감독은 허은정 서울대 교수인 월드뮤직그룹 블랙스트링 리더가 맡았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국악과 파두, 탕고 등 다양한 장르 음악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국내외 음악가 15개 단체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선보이다. 아시아성, 남도의 지역성을 모토로 정통 국악음악과 아시아를 조명하는 무대로 꾸며지며 판소리와 재즈, 파두, 포크 등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무대(24회)가 펼쳐진다.

첫 무대는 20일 오후 3시 극장1에서 '텔레마틱 퍼포먼스'로 문을 연다. 원격 통신(Telecommunication), 정보과학(Informatics)이 결합된 텔레마틱과 무대에서 펼쳐지는 라이브를 뜻하는 퍼포먼스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코로나로 참여하지 못하는 해외 음악가들은

'공감과 치유'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8월 20~22일 예술극장 등서 온·오프라인 진행 무료관람

국내외 음악가 15개 단체, 판소리·재즈·포크 등 24회 공연



마리자



선우정아

원격으로 참여하고, 현장에서는 라이브가 펼쳐지는 온오프라인 무대다.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파두 가수 마리자가 공연 영상으로 국내 팬들과 만난다. 이번 영상은 ACC월드뮤직페스티벌을 위해 새롭게 제작, 선보이는 공연 영상이다. 외국과 국내 연주자들도 인터넷

넷을 통해 음향과 영상을 주고받으며 협업하는 무대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 명창 공연을 만날 수 있는 '남도 레거시' (20일 오후 5시 극장1)도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김일구 명창과 국악계를 이끌어온 안숙선 명창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종합문화예술인 곳을 재해석한 관객참여형 공연 '굿과 홀림' (20일 오후 6시 극장), 판소리 눈대목을 엮은 정은혜의 '그물 The Water' (21일 오후 5시 극장1)도 신명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 협업 무대도 마련했다. 국악계 아이돌로 불리는 김준수와 유럽에서 주목받는 음악가 최은이 손잡고 무대를 채운다. (20일 오후 7시 극장1) 국내 최고 베이스 연주자 서영도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소리꾼 김윤희도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22일 오후 8시 극장2)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주·전남 신인 밴드밴드인 아트포앙상블, 더브로스카보밴드, 슬로우진, 새



지난해 8월 펼쳐진 ACC월드뮤직페스티벌의 한 장면.

<ACC 제공>

날, 밴드 녹터널, 노아 등 6개 팀 공연은 21일과 22일 어린이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밖에 대만 전통 음악을 다루는 음악가 사울알 루이와 가야금 연주자로 구성된 헤이스트링의 비대면 작업은 기록 영상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텔레마틱 콘서트와 사울알루이 헤이스트링 작업은 ACC

.R 레지던시 씨어터 사업으로 마련했다. 현장 관람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무료(홈페이지 예약 및 현장 접수)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문의 062-601-461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국립극장 공동 제작, '이건용, 오페라 박하사탕'

27~28일 서울 국립극장

아직 끝나지 않은 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가 서울 무대에 오른다.

광주문예회관과 국립극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주관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 공연 '이건용, 오페라 박하사탕' (이하 '박하사탕')이 오는 27일 오후 6시30분, 28일 오후 3시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박하사탕'은 2000년 개봉한 이장동 감독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창작오페라다. 2019년과 2020년 콘서트 오페라로 먼저 선보였고, 올해 2막 6장의 오페라로 정식 초연한다.

작품은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공수부대원으로 투입된 한 남자의 사랑과 파멸을 다룬 사실주의적 비극 오페라다. 원작 영화가 주인공 김영호에 초점을 맞춰 거대한 폭력이 한 인간을 어떻게 훼손시키고 파멸시키는지 다뤘다면, 오페라는 영호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의 개성을 입체적으로 그린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박하사탕'의 국립극장



'이건용, 오페라 박하사탕'이 오는 27~28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초연을 위해 최고의 제작진과 출연진을 구성했다. 작곡과 예술감독은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을 역임한 이건용, 대본과 연출은 뮤지컬과 연극을 넘나들며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연출가 조광화, 지휘는 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윤호근이 맡는다.

이밖에 김하늘·김향은·이하석·서정혁·한혜열

·장지에·신은선·임지현·임경아·문주리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무대에 올라 열연을 펼친다. 광주시립합창단과 노이오페라 코러스가 참여해 웅장함을 더하며, 연주는 오케스트라 디 피니가 맡는다. 국립극장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062-412-2507.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상념' 통해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우다

송운선 전, 15일까지 휴랑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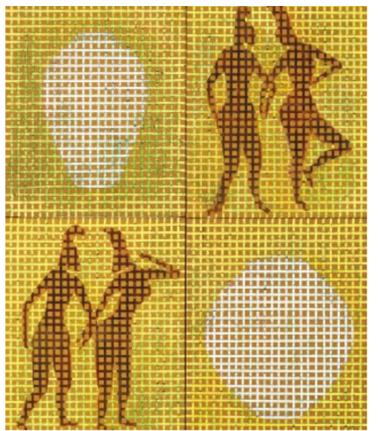
송운선 작가 개인전이 오는 15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휴랑갤러리에서 열린다.

'상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송 작가는 인간의 감성에 감춰진 다양한 생각들을 추상적인 표현으로 풀어냈다.

화면 속에 등장하는 건 '점'이다. 서로 같은 형태의 점들은 다른 형태의 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번지고 스며들면서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낸다. 격자 무늬가 얹히고 설친 화면은 복잡한 인간 심리를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며 다양한 색채 사용을 통해 스토리를 만들어간다.

송 작가는 "상념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또 채우며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려 했다"며 "작품 감상을 통해 사람들이 작은 휴식과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대 미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 최고위 과정을 수료한 송 작가는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등에서 24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국내외 아트페어와 그룹전에 참여했다.



'상념'

현재 ART 몬드리안 대표로 활동중인 송 작가는 (사)평화예술재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사)현대미술작가연합회, (사)한국국전작가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360-31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